

# “혁신 위해 AI·데이터 인텔리전스 등 선행 기술연구 매진”

## SAMSUNG

개발자 콘퍼런스 코리아 2023

AI모델 ‘삼성 가우스’ 구체적 소개  
다양한 상황서 최적화 언어 선택  
한국어 넘어 영어·중국어 등 지원

삼성전자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만나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미래를 논의했다. 최근 발표한 생성형 AI인 ‘삼성 가우스’와 함께 타이젠 ‘리부트’를 선언하며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삼성전자는 14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SDC) 코리아 2023’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SDC는 삼성전자가 개발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진행하는 행사다. 개발자들이 최신 IT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AI ▲스마트싱스 ▲헬스케어 ▲갤럭시 제품/서비스 ▲전장 등 다양한 세션으로 구별했다.

삼성전자 DX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삼성리서치장인 전경훈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삼성전자가 추구하



삼성전자 디바이스플랫폼센터 정재연 부사장이 스마트싱스를 발표하는 모습. /SDC 코리아 2023 중계 캡처

는 혁신은 항상 고객 경험으로 출발하며 최고의 고객 경험은 사용자의 니즈를 알아서 맞춰주는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AI, 데이터 인텔리전스 등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창출하는 선행 기술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개발자들에 AI 모델 ‘삼성 가우스’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삼성전자 개발자들이 직접 연단에 서서 ▲언어 ▲코드 ▲이미지 등 세 가지 모델과 함께 개발 과정과 작동 원리 등을 소개했다.

삼성 가우스 언어 모델은 방대한 훈련 데이터를 통해 언어 모델을 학습해

다양한 상황에 최적화된 크기의 언어 모델 선택이 가능하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등도 지원한다. 라이선스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안전한 데이터를 통해 학습했으며, 온디바이스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외부로 사용자의 정보가 유출되지도 않는다.

또 삼성전자는 삼성 가우스 코드 모델을 활용한 사내 소프트웨어 개발의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최근 선보인 푸드 ‘지식 그래프’ 기반 데이터 인텔리전스 등 기술을 제시하며 업무 효율 향상 기대와 함께 개발자들이 생태계에 참여해달라는 당부

도 빼놓지 않았다.

모바일 갤럭시 특징점도 강조했다. 퀵웨어와 갤럭시 스튜디오, 아동 계정 등으로 편의와 확장성을 높인 ‘원 UI’를 소개하고 개발자들에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스마트태그2와 연동할 수 있다며 참가자들에 스마트태그2를 증명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OS인 타이젠 ‘리부팅’도 선언했다. 이미 타이젠이 여전히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발전을 통해 가전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CE 기계에 최적화했으며, 개방형 특징으로 빅스비 등과 연동해 저가형 기기에까지 온디바이스AI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프로그래밍 언어도 C 등을 비롯해 성장하는 리스트를 지원하는 등 개발자 편의를 제고하고 새로운 그래픽 엔진을 탑재하는 등 성능 개선 계획도 밝혔다.

이어서 ‘삼성의 플랫폼과 개방형 협력’을 주제로한 발표에서는 ▲스마트싱스 개방형 플랫폼 기반 스마트홈 경험 강화 ▲AI가 소프트웨어 보안에 미치는 위협과 기회 ▲소프트웨어로 바꾸는 미래 이동통신 기술 ▲기술 혁신을 위한 삼성의 오픈소스 활동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그밖에도 ▲스마트싱스의 연결 경험 개선을 위한 솔루션 ▲비전(Vision) 기

반 의류 정보 인식 기술 ▲갤럭시 워치의 헬스 센서 데이터를 트래킹할 수 있는 SDK(Software Development Kit) ▲타이젠(Tizen) 8.0에서 새롭게 제공하는 흥미로운 기능 등 총 15개의 세션도 마련했다.

SDC 코리아 2023은 둘째 날 ▲카메라 기반 원격 광학류측정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홈 헬스케어 서비스 ▲삼성 어카운트 서비스 중단 없이 클라우드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클라우드 기반 가상화 솔루션을 이용한 전장 소프트웨어 ▲의료 분야의 데이터와 AI 기술 적용 ▲‘오소리(Open SOuRce DB Integration, OSORI)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통한 오픈소스 협력 계획 등 총 20개 세션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에 발표자들을 공개 모집해 다양한 분야의 개발자들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삼성SDS, 카카오, 현대자동차, 아주대학교의료원, LG유플러스 등 다양한 업계에서 활동하는 개발자들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 “SDV로 차량개발 근원적 패러다임 전환”

현대차그룹 ‘HMG 개발자 컨퍼런스’  
SDV로의 대전환 비전·방향성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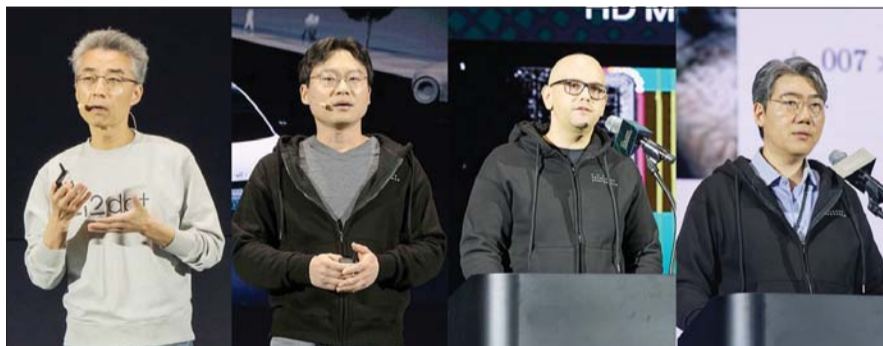
현대자동차그룹이 국내 최대 모빌리티 분야 개발자 축제인 ‘제3회 HMG 개발자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SDV(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로의 대전환이 가져올 미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현대차그룹은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한 HMG 개발자 컨퍼런스 발표 현장에 외부 IT 개발자, 대학생, 투자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SDV 대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최신 연구개발 성과를 외부에 공유하고 SW 분야 우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2021년부터 꾸준히 ‘HMG 개발자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개발자 컨퍼런스 행사는 ▲SDV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AI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으며, 현대차, 기아, 포티투닷, 현대모비스, 현대오트모버, 현대케피코, 현대트랜시스, 현대엔지니어링, 모셔널 등 총 9개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대차·기아 SDV본부와 포티투닷을 총괄하는 송창현 사장은 SDV 개념과 앞으로 진행될 소프트웨어 중심의 개발 방식 전환, 그리고 SDV를 통해 고객이 누리게 될 차별화된 경험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다.

송 사장은 “SDV란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개발 방식을 차량 개발에 적용



지난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 ‘제3회 HMG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송창현 사장(왼쪽부터), 유지한 전무, 마이클 세비딕 엔지니어링 부사장, 이상근 교수가 발표하는 모습.

하는 ‘개발 방식의 대전환’을 의미한다”며 “차량 개발에 대한 근원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궁극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자동차의 주행성능은 물론 편의 기능, 안전기능, 그리고 차량의 브랜드 정체성까지 규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차·기아 자율주행사업부 유지한 전무의 발표에서는 원격 자율주차(RPP, Remote Parking Pilot) 개발 영상을 최초로 공개하는 등 실제 개발자들의 연구와 노력이 현실로 반영되는 과정을 공유했다. 원격자율주차는 스마트폰으로 명령을 내리면 차가 알아서 빈 주차자리에 주차하고 또 차를 호출하면 탑승객 위치까지 스스로 이동하는 기술이다.

현대차·기아 남양기술연구소 주차타워에서 촬영된 이 영상에는 제네시스 GV80이 하차 구역에서부터 스스로 빈 공간을 탐색한 뒤 안전하게 주차를 완료한다. 이후 사용자가 승차 구역에서 차량을 호출하면 차량이 해당 구역까지 자율주행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 유지한 전무는 주차타워의 정밀지도와 축위 정보를 기반으로 원격 자율주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히며, 운전자가 주행 및 주차했던 경로를 기억해 자동으로 주차하는 기억 주차 기능도 함께 개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지한 전무는 “현대차·기아는 ‘보편적 안전’과 ‘선택적 편의’라는 개발 철학 아래 운전자는 물론 도로 위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자율주행 기술 일류화 달성을 위해 대외 개발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동시에 글로벌 협업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현대차그룹은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의 마이클 세비딕 엔지니어링 부사장의 무인 로보택시 기술에 대한 발표와 고려대학교 인공지능학과 이상근 교수의 인공지능 주제의 특강 등 외부 전문가의 발표도 구성해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양성운 기자 ysw@

# HD현대오일뱅크, 美 서부까지 수출 확대

SUNOCO社와 장기공급계약

HD현대오일뱅크가 미국 SUNOCO社와 내년 석유제품 장기공급계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21년 7월 하와이에 석유제품 완제품을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는 장기공급계약을 통해 휘발유·경유를 직접 수출해 왔다. SUNOCO社는 하와이와 미국 본토를 포함 전세계 유통망에 석유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계약 물량은 연 360만 배럴 이상으로, 기존 하와이에서 미국 서부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와이, 알래스카, 괌 등을 넘어 미국 본토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이승수 글로벌사업본부장은 “SUNOCO社와 지속적인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3년 연속 장기계약이 성사됐다”며 “앞으로 미국 본토로 휘발유 공급뿐만 아니라 더욱 다양한 사업 기회를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HD현대오일뱅크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전통적인 아시아 시장을 넘어 지속적으로 수출 영토를 넓히고 있다. 2013년 거래를 시작한 뉴질랜드에는 연 700만 배럴 이상을 수출하고 있으며, 2022년 이후 대 미국 수출 비중 또한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포스코DX, 코드재활용 개발자 편의성 향상

로봇자동화에 챗GPT 적용

포스코DX가 로봇자동화(RPA) 솔루션 에이웍스(A.WORKS)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를 결합해 개발 편의성을 높였다고 14일 밝혔다.

RP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발자가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기 위한 스크립트를 작성(코딩)해야 하는데, 챗GPT를 적용함으로써 기존 작성된 코드를 불러와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포스코DX는 챗GPT 화면을 별

도로 열지 않더라도 개발자의 스크립트 작성 화면에서 바로 코드를 불러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했으며, 사용자가 작업을 진행할 때 동시에 백그라운드에서 RPA 작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구현했다.

포스코DX는 최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에이웍스 솔루션에 담기 위해 RPA 솔루션 파트너사 개발자 대상으로 ‘2023 A.WORKS 개발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에이웍스를 적용해 RPA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하나금융데이터, 신세계아이앤씨 등 파트너사 개발자 60여명이 참석했다.

/양성운 기자